

LOCAL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나주, 지역 청년 적성·꿈 매칭 일자리 확대

고흥, 지역화폐 현장 지원 찾아가는 QR결제 서비스

고흥군은 지역 소상공인과 군민 누구나 고흥사랑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농동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모바일 QR결제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현장 지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착(chak)' 앱 설치 지원, 결제 등 사용법 안내, QR 현판 보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농동향 주변 상점가와 주요 전통시장 등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해 군민 누구나 손쉽게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흥사랑상품권은 지류·카드·모바일 3종으로 발행되며, 모바일형은 스마트폰 앱(지역상품권 chak)에서 충전 후 가맹점 QR을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상품권 유통 활성화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절감, 매출 증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은 24시간 구매가 가능하고, QR 결제를 이용하면 중개 수수료가 없어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보성물, 추석맞이 특별 기획전 22~24일 최대 20% 할인 판매

보성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22~24일 3일간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보성물'에서 최대 20% 할인과 다양한 적립 이벤트가 함께하는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성물 이용 고객 전용을 대상으로 최대 20% 할인(일부 품목 제외)이 적용되며, 최소 2000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톨렛 이벤트도 마련됐다.

또한 보성물 적립금 이벤트로 신규회원 가입 시 3000포인트 지급, 추석 체크 100포인트, 상품 구매 시 3% 적립, 구매 후기 작성 시 최대 300포인트를 제공해 할인 혜택과 함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보성물'에는 180여개 업체, 1000여개 품목이 등록돼 있으며, 청정 자연에서 키운 보성 차(茶), 키위, 포카, 녹돈, 울벼쌀 등 지역 대표 특산물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내일 빛가람호수공원에서 '11회 잡페스티벌' 개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80여 기업·기관 참여

나주시가 청년의 날과 연계한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제11회 잡(JOB)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20일 빛가람호수공원에서 진행되는 잡페스티벌에 8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며 일자리 연계는 물론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장 참여 기업으로는 ㈜인터테크, ㈜엔씨코리아, ㈜해미로, 동우일렉트릭㈜, 빛가람종합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기업

이 참여하며 온라인 참여기업 47개소까지 합쳐 총 70여개 업체가 구인에 나선다.

현장을 찾은 청년과 구직자들은 구인 기업 현장 면접, 1대1 취업 컨설팅, 고용 정책 홍보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 KDN, 한국전력거래소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채용 컨설팅에서는 현장자 멘토링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전략 지도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센터 등이 함께 참여해 폭넓은 고용 및 취업 정보를 소개한다.

최근 빛가람동에 개원한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 전력기술교육원도 전기분야 신중년특화과정, 하이테크교육과정 등 재취업 교육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메이크업, 취업 타로, 직업 및 적성검사

등 청년 맞춤형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청년의 날과 통합 개최됨에 따라 청년 창업가 플라마켓, 정책 홍보관, 정책 골든벨 등 청년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윤병태 시장은 "청년의 날과 함께 열리는 이번 잡페스티벌은 청년들에게는 적성과 꿈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기회이자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장흥군 '노벨 성장 프로젝트' 성황 장흥군은 올해 4월부터 이달까지 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치유센터 등 2곳에서 추진한 임신·출산 가정 마음치유프로그램인 '자유부인 힐링터' 등 4개의 '노벨 성장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제공=장흥군

신안 퍼플섬, 3년 만에 보랏빛 아스타로 물든다

26~28일 아스타꽃 축제 환상적 가을 정취 선사

신안 퍼플섬이 3년 만에 보랏빛 아스타 꽃으로 물든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오는 26~28일 퍼플섬 아스타정원에서 '퍼플섬 아스타꽃 축제'를 개최한다.

그동안 아스타정원은 유례없는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아스타 국화의 생육 불량이라는 난관에 직면했었다.

군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관리와 노력으로 아스타정원의 회복에 성공, 3년 만에 축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축제는 보랏빛 아스타 국화로 물든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축제 기간 이후에도 10월 말까지 아스타정원을 개방해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아스타 국화를 계속해서 감상할 수 있



퍼플섬 아스타정원 모습.

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내년에는 대대적인 정원 재정비를 통해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아스타정원을 선보여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낼 계획이다.

김대인 군수 권한대행은 "아스타 꽃의 퇴화 시기와 기후변화가 맞물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축제는 고난을 극복하고 피어난 아스타 국화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퍼플섬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어 전 세계인을 맞이하는 명소가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퍼플섬은 2020년 이후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며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섬 전체를 감싸는 보랏빛 꽃과 나무, 그리고 바다와 갯벌, 하늘과 구름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신안=성명준 기자 tjdaudw@s

'알락꼬리마도요' 깃대종 선포 보성별교갯벌 보전 의지 대내외에 알린다

보성군이 20일 장양어촌체험마을에서 보성별교갯벌의 대표 깃대종으로 '알락꼬리마도요'를 공식 선포한다.



알락꼬리마도요

알락꼬리마도요는 아시아와 호주로 오가며 보성별교갯벌을 핵심 기착지로 삼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이동성 새종으로, 군은 이를 깃대종(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동식물)으로 지정해 갯벌 보전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업무협약을 맺고, 멸종위기종 조사·국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주민 참여형 생태교육 등을 추진해 국제 협력 기반을 넓힌다.

현장에는 학계 전문가, 어업인,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하며, 갯벌 사진 전시회와 지역 가수 공연도 이어져 생태 보전 메시지를 한층 풍성하게 전

할 예정이다. 김철우 군수는 "깃대종 선포는 갯벌을 미래세대까지 지켜내겠다는 군의 약속"이라며 "보성별교갯벌이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국제사회와 함께 보전에 나가는 생태관광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포식은 같은날 개막하는 '2025 보성별교갯벌축제'와 연계돼, 관광객과 주민들이 갯벌의 즐거움과 보전 가치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자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

장성 농산물 가공 전문기술교육 개강 11월 25일까지 총 10회...체계적 기술 지도

장성군은 최근 농업인회관에서 올해 '농산물 가공 전문기술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장성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에 관한 전문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관련 분야 장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인허가·마케팅 전략'도 알려준다.

11월 25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열리며,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을 갖춘 것이 장점이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을 활용한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개강식에서 최해성 오곡밭호미마을 대표가 창업부터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농업인들과 나눴다.

교육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90-8468)로 연락하면 된다. 김한준 군수는 "장성군의 미래 성장 동력 가운데 한 축을 농산물 가공산업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며 "농업인이 자신 있게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ihb6699@gwangnam.co.kr

검색창에 광주판촉물 검색 나라장터 · S2B 학교장터 등록업체

판촉물 / 기념품 / 굿즈

광주판촉물

www.광주판촉물.com

062.376.5431